

도서관대회 대통령상 수상 해남 군립도서관 가보니

책도 보고 댄스도 배우는 '문화사랑방'

개관 7년만에 장서·이용객 5배 늘어

요가·기타교실 등 문화강좌도 다양

지난 5일 오후 3시, 170석의 열람실은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켠에서는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무리지어 자료를 뒤져는가 하면, 코흘리게 어린이와 같이 온 엄마가 그림책 두어권을 골라 사서에 내미는 모습도 보였다.

컴퓨터를 통해 책을 찾고 있던 김 미화(해남을 구교리)씨는 "신문을 보면 새로 나온 책의 서평장을 먼저 보는데 읽고 싶은 책이나 아이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은 서점에 신청해 도 이를 통해 도착한다"면서 "그런데 군립도서관에 와서 검색해보면 그 책이 비치돼 있어 일주일에 꼭 한번은 도서관을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 4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전국 1만3천여개의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등을 제치고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해남군립도서관·관장 체성기·문화체육진흥사업소장은 평일인데도 백화점 매장처럼 붐볐다.

군립도서관은 지난 2002년 해남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면서 1천 650여㎡(500여평) 공간에 170석의 열람석, 1만7천여권의 장서로 출발했다. 이후 군 차원의 도서모으기 운동을 적극 전개, 현재 장서는 8만 2천여권으로 불어났고 사서도 출발 당시 1명에서 3명으로 총원됐다.

이 같은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풍부한 소프트웨어로 대통령상 수상에 한몫했다. 군립도서관은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11시까지 자료실을 개방,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제워주고 있다.

이승완 사서는 "휴일에는 170개의 열람석이 만석"이라며 "개관 초기에 하루 100여명에 불과하던 이



용객이 5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월별·계절별로 스포츠 댄스, 요가교실, 기타교실 등 다양

는 야간강좌를 오후 9시 이후까지

운영해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도서관 이용객을 위한 독서통장도 인기다. 3년 전부터 시작한 독서통장은 열람한 도서목록을 꼬박꼬박 기재해 이용자 스스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었는가, 연중 몇 권이나 열람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독서이력카드 기능을 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윤성희(해남동초)양은 "책도 많

지만, 보고 싶은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친구들과 매일 도서관에 들려 숙제도 하고 책도 읽는다"면서 "특히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한 독서통장을 만들어줘 너무 재미있다"고 활짝 웃었다.

채성기 관장은 "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활동을 가능케 하는 중심"이라며 "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서를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9월 1969년 무안군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사회,

교수·요식업자 등 '여수해장국' 재현 나섰다

오동도 동백꽃 향기와 남해바다를 물리는 뱃고동 소리, 시원하게 속을 풀어 줬던 '여수해장국'.

과거 여수를 떠나는 많은 이들의 입안을 흘렸던 여수해장국이 본격 재현된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여수의 옛 해장국의 완벽한 재탄생을 위해 대학교수와 요식업 경영인, 수산업 관계자, 판매 경찰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재현팀을 최근 꾸렸다.

시는 재현팀 구성은 계기로 여수해장국의 기원과 맛 탄생 과정, 여기에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인 '여수해

장국'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8일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어머니 마음으로 만든 여수해장국을 재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여수의 먹거리를 선보여 관련사업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옛 정취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때 그 시절의 맛을 재현해 시식회를 거쳐 판매업소를 선정, 판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1960년대 흑산항에 모인 조기잡이 배

신안군은 9월 1969년 무안군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사회,

문화, 교통, 인물 등의 다양한 변천사를 사진으로 엮은 '사진으로 보는 신안군 40년사' 화보를 발간했다. 사진은 화보에 실린 '1960년대 신안군 흑산항에 모인 조기잡이 배' 모습.

<신안군 제공>

완도군 내년 예산안 군민의견 반영 '호응'

완도군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공청회를 갖는 등 군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각 팀별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예산안 관련 주민여론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민소득증대 사업과 생활편의 위주의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종석 군수는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검토 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20일까지 2010년 예산안을 확정해 완도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보성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높인다

입찰공고에 자재·인력 등 지역 조달 개재

보성군은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각종 공사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참여 협조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등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9일 군에 따르면 대상사업은 전자 견적서를 제외한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 전기·소방·통신공사·산림사업 등은 8천만원 이상 입찰공사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군은 향후 '공사나눔자'는 보성군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불계약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사용,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이용 등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게재하기로 했다.

/보성군=김민정기자 sun@

또 감독공무원 또는 부서업무 담당자의 경우 협장접침 및 감독일자에 협조사항을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기재하고, 지역업체들의 협조를 독려 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부서에서는 적격심사, 도급계약서 작성시 낙찰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보성읍에서 건설업을 하는 Y씨는 "이 같은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업체들은 적정기각 받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살리기는 각종 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다수 참여하고, 모든 기관단체와 군민들이 내 고장 제품을 반드시 구입한다는 마음가짐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성군=김민정기자 sun@

KBS 사랑나눔봉사대

15일 강진서 무료진료

청자골 강진에 'KBS 사랑나눔봉사대'가 찾아온다.

9일 군은 KBS 사랑나눔봉사대가 오는 15일 강진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의료 등 8개 분야 16개팀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10명의 전문 의료팀이 의료봉사를 펼치고, 메이크업 및 헤어디자이너들의 이·미용팀은 참여주민들에게 머리를 손질해준다. 공연팀은 가요·판소리·농악·악기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순천 왕지동 '두산위브' 관심 폭발

학군·교통 좋아 모델하우스 북적

순천시 일대가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두산위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 왕지동 일대 41만여㎡(12만4천여평)에 건설중인 두산위브는 지하 4층, 지상 25층, 13개동 규모로 1천317세대가 들어선다.

두산위브에서 손꼽히는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는 조경이다. 1.8km에 달하는 순환형 산책로와 넓은 들판의 잔디 정원, 단지 전체를 관통하는 실개천, 자연스러운 언덕 형태의 잔디스탠드 등은 자연을 살려 녹지율을 높인 최고 수준의 조경으로 평가받는다.

교육시설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띈다. 각 단지 커뮤니티 시설에는 독서실과 도서관이 마련돼 있다. 또 1단지 지와 2단지 사이에 내년 개교를 앞둔 초등학교와 중학교(2011년 개교 예정)가 들어서고 강남여고와 대학교 4곳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통지도도 좋다. 17번 국도가 관통하고 북으로는 순천산업단지와 순천IC가 연결되며 남으로는 왕지구·연현지구 및 순천 구도심과 여수와 광양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두산위브 모델하우스는 하루 평균 5천여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청약 최대 경쟁률이 6.14대 1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고 있다.

교통지도도 좋다. 17번 국도가 관통하고 북으로는

순천산업단지와 순천IC가 연결되며 남으로는 왕지구·연현지구 및 순천 구도심과 여수와 광양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두산위브 모델하우스는 하루 평균 5천여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청약 최대 경쟁률이 6.14대 1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공인중개사 : 강영희
TEL 062-364-8700
HP 010-4608-3700

[주]국민법률경매

박영진 이사
TEL 062-367-3005
HP 011-642-2840

예금		근로자		토지·건물·임대·대여		주택		부동산	
지역	소재지	면적(m²)	건물(m²)	길동	면적(m²)	면적(m²)	층	면적(m²)	면적(m²)
전남	월계동	106/32	8평	5평6평	105/98	24평	1평5평4평	105/2	2평1평2평
대구	대구	158/48	1평9평4평	19평3평4평	105/32	8평7평4평	1평5평4평	105/24	2평1평2평
경기	경기	119/36	1평1천	7평1천	109/32	8평7평4평	1평5평4평	105/32	2평1평2평
부산	부산	109/33	8평	5평6평	112/34	1평2평3평	1평4평2평	112/34	2평1평2평
제주	제주	112/34	1평1천	8평7평4평	112/34	1평1천	1평2평3평	112/34	2평1평2평
전북	전북	112/34	1평1천	8평7평4평	112/34	1평1천	1평2평3평	112/34	2평1평2평
전남	전남	112/34	1평1천	8평7평4평	112/34	1평1천	1평2평3평	112/34	2평1평2평
충남	충남	112/34	1평1천	8평7평4평	112/34	1평1천	1평2평3평	112/34	2평1평2평
경상	경상	112/34	1평1천	8평7평4평	112/34	1평1천	1평2평3평	112/34	2평1평2평
제주	제주	112/34	1평1천	8평7평4평	112/34	1평1천	1평2평3평	112/34	2평1평2평
전북	전북	112/34							